

Young S. Lee & Myeong E. Jeon (KMIA 파송 호주원주민 선교사)		No. 1/ 2014. 11. 27. 0413-113-192(Y) 0425-304-251(M) 070-4388-6468
::::::::::: <i>Tree by the River</i>		

☀ 파송 및 현지로의 이주

오래 전부터 호주원주민 선교를 꿈꾸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말, 13년간 담임목사로 시무하던 시드니 한인장로교회(대양주 예수교 장로회 소속)를 사임하고 5월말 한인 호주원주민선교회(KMIA/ Korean Mission



for Indigenous Australian/ 회장: 주정오 목사) 의 파송을 받고 이곳 타리(Taree NSW)로 아내(전명은)

와 함께 이주해 와 자그마한 플랫폼을 하나 얻어 정착 했습니다. 이곳으로 이주해 온지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감을 실감합니다. 그간의 소식을 전하며 기도를 요청합니다.

☀ 언어 훈련

호주 원주민은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들의 언어는 사라져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원주민은 그다지 많지 않고 거의가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 타리 지역의 원주민들 역시 영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지난 13년 동안 한인 교회에서 시무하며 영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를 더 배우기 위해 TAFE College와 Mission Australia에 등록해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AIM(Australian Indigenous Ministries)의 대표이신 Rev. Trevor Leggott 목사님의 사모님(Pamela)께서 저희의 영어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매주 저희를 지도해 주십니다.

☀ 타리 지역사회와 관계 맺기

이곳에 이주한 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지역사회와의 관계였습니다.

▶ 교회 등록

먼저, 타리 시내에 자리 잡고 있는 호주 동부장로교(PCEA)에 소속된 교회에 등록하여 예배를 드리며 성도들과 사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교인이 호주인과 유럽에서 이주해 온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양인은 저희 부부가 유일한데 온 성도들이 큰 관심을 가져줍니다. 이 교회도 오래 전부터 호주원주민 선교에 크게 헌신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 부시랜드(Bushland) 원주민 어린이 사역

저희 집에서 자동차로 4~5분 거리에 있는 부시랜드는 원주민들이 주로 모여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원주민 지도자 Brian과 함께 원주민 아이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

하는데 보통 3~40명, 많게는 60여 명까지 찾아옵니다. 2015년부터는 이틀 중 하루를 토요일로 변경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 무료급식소 주방봉사 사역

타리지역의 원주민들과 Homeless people을 위해 Taree Uniting Church에서 운영하는 TNK(Taree Neighbourhood Kitchen)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또한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자원봉사자로 주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Police check(신원 조회)와



Children Check (어린이와 관련된 성범죄 전과 조회) 까지 거쳐야만 자원봉사자로 받아들여질 만큼 등록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곳은 주중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운영

되는데 매일 3~40명씩 찾아옵니다. 이곳에서 타리 지역의 원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 **Woodworkers Club에 가입**

시드니에서 목회를 할 때 매주 월요일 쉬는 날을 이용해 뒷마당에서 목공을 즐겨 했습니다. 이곳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Woodworkers Club을 찾아가 등록했습니다.

회원은 50대 중반부터 80대까지 다양했는데 그



가운데는 타리의 유지들과 유력한 분들이 많습니다.

한 달에 다섯 차례씩 모여서 워크숍도 열고

만든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이들은 또한 일 년에 몇 차례 작품 전시회도 열어 그 수익금으로 여러 가지 사회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SCD 아웃리치 팀 타리 방문

지난 9.22~26까지 SCD(시드니 한국 신학대학)학생들로 구성된 아웃리치 팀이 타리 지역의 원주민 문화와 서양문화 탐방을 목적으로 타리를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들의 숙박을 제공했고 교회당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들과 한 주간 동안 동행하며 타리와 인근의 해링턴(Harrington)



지역을 다니며 다양한 문화체험을 했습니다.

12월에는 시드니에서 몇 교회가 아웃리치 팀을 구성해 타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서부 호주 김벌리 지역 원주민 선교여행

저는 지난 11.3~8까지 제가 소속된 KMIA (Korean Mission for Indigenous Australian) 이사들의 선교지 개척 및 확장을 위한 선교여행에 참가했습니다. 6명의 이사 목사님들

이 함께 한 이번 여행은 서부 호주(Western Australia)의 9개 지역 가운데 하나인 김벌리 지역(Kimberley region)이었는데 짧은 여정 가운데 Derby에서 Kununurra까지 가며 그 광활한 아웃백 (outback)에 흠뻑 살고 있는 원주민 마을을 10여 군데 이상 방문하는



강행군을 했습니다. 연일 40도를 넘는 온도에 습도까지 높아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그 척박한 곳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복음의 텃밭을 일구는 일선의 선교사들의 사역을 보며 호주원주민 선교의 밝은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번 선교여행의 기행문을 크리스찬 리뷰 12월호 기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링크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http://christianreview.com.au/sub.html?section=sc6§ion2=%B4%DC%B1%E2%BC%B1%B1%B3%BF%A9%C7%E0%B1%E2>

☀기도 제목

톨스토이는 그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선교사는 후원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삽니다.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 ①지역사회, 원주민 사회와의 관계 증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관계는 모든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 ②앞으로 더욱 구체적인 사역의 장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③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④시드니에 두고 온 아이들(이지혜/22, 이지현/17)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⑤저희 부부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후원해 주시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1 Spence St. Taree NSW 2430
타리에서 이영식 전명은 선교사 드립니다.